

새로운 정치공간을 찾아서 : 샤를 푸리에(C. Fourier)의 협동사회를 통한 역사적 상상력*

박 주 원**

• 요 약 •

이 글은 새로운 ‘정치’의 공간을 상상하고 구체화해보려는 하나의 시론적 작업으로서, 19세기 초기 사회주의자 샤를 푸리에(Charles Fourier)에게서 나타나는 협동사회의 경로와 꿈을 당대 푸리에주의자들에 의해 전개되었던 협동사회의 역사적 실험들과 20세기 후반부터 우리 사회에서 출현하고 전개되고 있는 새로운 협동체의 모색에 연결시켜보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그 사회의 노동활동이 각 개인의 정념에 따라 자유롭고도 사회적으로 재배치되는 데에서 협동사회의 철학적 이념과 실제적 조건을 찾았던 푸리에의 사상은 정치의 공간을 노동의 영역, 사회적 영역과 연계할 수 있는 철학적이고도 역사적인 상상력을 던져주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이 글은 푸리에가 제안했던 새로운 사회에서 노동과 생산 활동이 영위되는 사회적 관계와 분배의 원리는 무엇인지, 또한 그러한 사회적 배치가 어떻게 공동의 정치적 공간을 구성할 수 있을지 그 정치적 함축을 이끌어 내보고자 하였다. 나아가 푸리에의 사상을 이후 푸리에주의자들에 의해 전개되었던 협동사회의 역사적 실험들과 이후 우리 사회에서 출현하고 있는 새로운 공동체 개념 혹은 새로운 노동과 분배의 개념에 연계시켜 봄으로써, 새로운 ‘정치’에 대한 역사적 철학적 상상력을 확장해보고자 하였다.

비록 푸리에의 사상에서 정치이념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는가의 문제는 보다 먼밀한 이론적 검토를 필요로 하는 것이지만, 이 글의 검토를 통해 보았을 때 그에게 공동체의 ‘질서’ 혹은 ‘원리’가 생산활동과 분리된 공간에서 선출된 소수의 대표자에 의해 영위되는 것이 아니었음은 분명하다. 그에게서 ‘정치’란 자신의 일과 노동활동을 사회적인 관계로 스스로 구성하고 조직하는 활동이자 그 배분의 기준을 결정하는 활동 자체에 다름 아니었다. 그러므로 푸리에의 협동사회 혹은 공동체의 원리에서 ‘정치’의 이념이 있다고 할 수 있다면, 그것은 스스로 자유로운 노동활동의 배치에 참여하여 결정하고 그 활동에 대한 분배의 기준과 그 평가에 직접 참여하는 ‘생산자 스스로의 자치’로 조심스럽게 형상화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이 연구는 2022년도 영남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에 의한 것임.

** 영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푸리에에 따르면, 협동사회와 공동체의 구성원은 다른 이들과의 관계에서 자유로운 노동을 영위하면서 동시에 그 공동체의 원리를 결정하고 실제적 운용을 판단하는 정치적 주체가 되어야 하는 것이었다. 바로 그것이 이 글이 푸리에를 경유하여 이끌어냈던 현재적 시사점이었다. 노동과 분배를 정치와 관련짓는 그 연결의 방향은 단순히 경제적인 고용과 소득의 보완책이나 복지정책의 차원에서 머물거나 조합원 몫의 배당과 노동조건을 개선하는데 초점을 두는 조합주의적 차원에서 나아가, 스스로가 속한 경제적 사회적 삶의 원리와 시스템을 구성하고 배치할 수 있는 활동, 바로 그러한 정치적 행위로 나아가야 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 샤를 푸리에, 노동, 욕구, 정념계열, 정념거래소, 분배, 최저수입제, 협동사회, 팔랑주, 팔랑스테르, 부록팜, 공동체운동, 역사적 상상력, 새로운 정치체, 정치이념

I. 서론: 시대의 이행 혹은 이행의 공간, 근대 정치를 넘어서

지금 우리는 이제까지의 정치적 삶을 묶어주고 설명해 왔던 틀이 무너져가는 현실에 처해 있다. 계속되는 불황과 경제적인 위기, 장기적인 실업과 악화된 분배구조로 인해 효율성의 신화는 무너지고 자본주의라는 틀은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 더욱 근본적으로는 오랫동안 정당과 국가의 여러 제도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대의 민주주의라는 틀이 지금의 갈등을 해결하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이제까지의 것들은 낡은 것으로 의심되고 그러나 아직 어떤 것도 분명한 것은 없는 시대, 그리하여 의심과 불안으로 동요하는 시대, 지금의 시대는 역사적 이행기에 처해있다. 우리가 현재 목도하는 혐오와 선동의 정치는 신뢰하고 지켜야 할 사회적 가치와 정치적 척도를 상실한 시대의 슬픈 초상이다.

그렇기에 지금 우리의 시대의 미덕은 과거의 매뉴얼을 ‘성실히’ 따르는데 있지 아니하고 현재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들, 그리고 새로운 가치, 새로운 교류관계, 새로운 정치에 대한 철학적 논구와 역사적 상상력이 오히려 ‘현실적’인 것이 된다. 과연 이전과 다른 시대를 여는 새로움이란 무엇일까?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그것을 이전과 다른 새로운 시작이라 말할 수 있을까? 한 시대의 이행이란 어떻게 구성되는 것일까?

한 사회에서 보다 나은 삶의 양식과 정신의 형태를 어떻게 확증하고 단언할 수 있는지에 대해 본원적인 질문을 던졌던 레비-스트로스(C. Levi-strauss)는 역사의 변화가 필연

의 법칙이 아니라 우연한 놀이의 축적이라 말한바 있었다. 이를 통해 그는 그 이전까지 역사를 일련의 법칙적 발전으로 보고 그 발전의 준거를 제시해왔던 근대의 역사주의와 계몽주의에 문제를 제기했으며 이렇게 촉발된 질문을 공유하는 사상의 흐름을 사람들은 구조주의라 명명했다. 또 다른 한편으로, 존재의 문제를 언제나 시간 속에 드러나는 현존(Das Sein)으로 바라본 하이데거(M. Heidegger) 이후 실존철학의 입장에서는 역사의 변화를 객관적 실재론의 영역이 아니라 서로의 사이에서 만들어 내는 의미의 공간을 재의미화 하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이들에게 새로움에 대한 화두는 어떻게 사물과 세계를, 타인과 자기 자신을 새로운 의미로 관련지어가는 바에 놓여 있었다.

실존철학의 연장선상에서 자신의 정치철학을 형성해 갔던 아렌트(H. Arendt)는 이러한 맥락에서 만일 ‘세계(world)’가 단지 우리의 밖에 존재하는 대상이거나 우리가 만들어낸 결과물일 뿐이라면 우리에게 세계란 단지 저 앞에 펼쳐진 물건더미거나 시멘트더미에 불과할 것이라고 비판한다. 나와 타인을 연결시켜주는, 그리하여 서로의 사이에 만들어 낸 의미의 공간을 아렌트는 ‘세계’라 불렀다. 그녀가 근대사회의 비극을 ‘세계 소외’로 보았던 까닭은 근대 사회에서 우리들이 스스로를 드러내고 서로에게 결속시켜 줄 의미의 공간을 상실했기 때문이다.¹⁾ 우리가 처한 근대의 세계는 실존의 근거를 잃어버린 텅 빈 공간이며, 고독한 공간이라는 것이다. 그녀에게 대의제는 스스로의 의견(opinion)을 형성해 갈 수 있는 공간을 박탈했을 뿐 아니라 개인과 개인 간의, 개인과 세계 전체와 의미 있는 관련을 맺어주지 못함으로써, 정치는 아무런 서로의 신뢰에도 기초하지 못한 채 지배와 통제의 권력으로 자립화하였으며 도구적 권력으로 귀결되었다. 그녀에게서 관료제와 전체주의는 인간의 실존적 삶의 조건을 상실한 근대 정치의 필연적인 귀결이었던 것이다.²⁾

나아가 이러한 현실은 근대의 관계 양식이 정치적인 것과 사회적인 것의 분리로, 그리하여 한편으로는 생산적 삶의 영역과 다른 한편 공적 정치적 영역으로 분리된 채 자립화되어 표상하고 있음을 드러내준다. 국가가 단지 부르주아의 위원회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던 마르크스는 그러한 의미에서 ‘정치의 종언’을 이야기했으며, 아렌트는 ‘사회적인 영역’의 부상으로 상실된 ‘정치적인 영역’을 재건할 것을 이야기했다.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제시했던 방향은 비록 달랐지만, 두 사람 모두 근대 ‘정치’가 개인의 사적 사회적 이

1) Arendt, H., *Human Condition*, New York: Doubleday Anchor Books, 1959, pp.52-3.

2) 이렇게 본다면, 20세기 들어와 목도하게 된 경영학과 행정학의 부상은 우연이 아니다. ‘정치’가 단지 사적 이해를 어떻게 더 잘 성취할 수 있을지 그 효율성의 문제로만, 그것을 잘 관리하는 도구로서 치안과 행정으로만 귀결되어버림으로써 그 의미를 잃어버린 결과이기 때문이다. 필자의 글, “‘뉴 라나크’와 ‘뉴 하모니’ 사이에서: 오웬의 유토피아 실험에서 정치 이념의 전환”, 『현상과인식』, 40권 제4호, 2016, p.230.

해와 권력을 확장하는 도구로 축소되었다는 근본적인 비판에서 출발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이 글의 문제의식 또한 노동과 생산활동이 이루어지는 사적이고도 사회적인 영역과 공적이고도 정치적인 영역을 의미있게 관련지워 우리 시대 ‘정치’의 이념과 실재가 변화되고 확장되어야 한다는 데에서 출발한다. 물론 사회과학 전반이나 정치학 분야에서 ‘민주주의’의 공간을 확대하고 ‘정치’의 외연을 넓히기 위한 이론적 노력은 다양하게 이루어져 왔지만, 권력과 정치의 문제를 사회적 관계 혹은 생산 및 노동의 문제와 근본적으로 연결하여 파악하려는 이론적 시도는 정치학 분야에서는 매우 부족한 현실이다. 이 글은 정치의 영역과 사회적 영역을 근본적으로 관련짓는다는 것이 단순히 기존의 정치 공간에 비례대표로서 노동, 경제, 여성, 청년 등의 몫을 할당하는 방식이거나 정부의 정책으로서만이 아니라, 분리된 두 영역을 인간의 실존적 삶의 공간속에서 관련시키는 문제라고 파악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이 글은 새로운 ‘정치’의 공간을 상상하고 구체화해보려는 하나의 시론적 작업으로서, 19세기 초기 사회주의자 샤를 푸리에(Charles Fourier: 1772~1837)³⁾에게서 나타나는 협동사회로의 경로와 꿈을 당대 푸리에주의자들에 의해 전개되었던 협동사회의 역사적 실험들과 20세기 후반부터 우리 사회에서 출현하여 전개되고 있는 새로운 노동과 배분의 개념, 새로운 협동체의 모색에 연결시켜보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 사회의 노동활동이 각 개인의 정념에 따라 자유롭고도 사회적으로 재배치되는 데에서 협동사회의 철학적 이념과 실재적 조건을 찾았던 푸리에의 사상은 정치의 공간을 노동의 영역, 사회적 영역과 연계할 수 있는 철학적이고도 역사적인 상상력을 던져주기 때문이다.

이미 앞선 연구에서 필자는 유토피아 사회주의 사상가⁴⁾의 하나로 평가되는 샤를 푸리에(C. Fourier)의 이상적 공동체 ‘팔랑쥬(phalange)’를 통해 즐거운 노동공동체의 가능성을 제안한 바 있었다. 그 연구에서는 푸리에 사상에 나타나는 새로운 사회의 기획을 노

3) 푸리에(C. Fourier)의 생애와 저작에 대한 일반적인 평가 및 푸리에 사상을 사회주의, 아나키즘, 집산주의, 상호부조론, 협동조합주의 등으로 해석하는 연구에 관해서는 필자의 글, “푸리에에서 맑스? 맑스에서 푸리에로 - 팔랑쥬(phalange), 즐거운 노동공동체의 가능성과 한계”, 『한국정치학회』, 제37집 제3호, 2003. pp.153-6 참조.

4) 유토피아 사회주의자(Utopian Socialists)라는 개념은 1839년 경제학자인 제롬 블랑키(Jérôme Blanqui)의 저서 *History of Political Economy*에서 처음으로 생시몽과 오웬, 푸리에를 규정하는 용어로 쓰여졌는데, 이후 맑스와 엥겔스가 1848년 『공산주의 선언』에서 이 명칭을 다시 원용함으로써 그들에 대한 일반적인 명칭이 되었다. Cole, G. D. H., *Socialist Thought: The Forerunners 1789~1850*, London: 1962, 이방석 옮김, 『사회주의 사상사1』, 서울: 신서원, 1987. p.17. 필자의 글 ‘위의 논문(2003)’, p.150 각주1) 재인용.

동과 인간 본성의 관련에 초점을 맞추어 고찰하였다. 그에게서 제시된 유토피아의 모습은 ‘매혹적인 노동(le travail attrayant)’, ‘놀이로서의 노동’에 있으며, 그 가능성은 바로 노동활동이 인간의 자연스런 정념(passion)에 따라 영위될 때에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한 작업은 그간 푸리에의 사상을 주로 마르크스로 이르는 사회주의 사상의 흐름의 연속선상에서만 평가해왔던 해석에 대한 문제제기였다.⁵⁾ 마르크스(K. Marx)는 1848년 『공산주의 선언』에서 이들의 이론을 ‘비판적, 유토피아적 공산주의(kritisch utopisch Sozialismus)’로 표현하였다(Marx MEW 4: 489).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언급 이래 푸리에의 사상은 프롤레타리아를 사회변혁의 주체로 삼지 못함으로써 혁명의 실재적이고도 정치적인 역할을 간과한 것이며 그렇기에 근대 산업사회에 대한 근본적 비판의 의미를 갖지만 유토피아적인 것이라고 비판되어 왔다.⁶⁾ 그러나 필자는 푸리에의 사상이 앞으로 사회주의적 ‘정치’의 내용을 새롭게 재구성해 줄 단초를 제공한다고 해석하고 푸리에를 경유한 맑스가 아니라 맑스에서 푸리에의 방향을 제안하였다. 즐거운 노동사회라는 ‘팔랑쥬’의 기획은 자신의 정념에 반하여 배치되는 억압적 노동으로부터 벗어나 어떻게 자율적 노동의 주체가 될 수 있는가의 문제에 중요한 시사점을 던질 수 있으며, 혁명을 통해 정치권력을 장악하는 방식과는 달리 협동적 사회 혹은 연대적 정치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 방향과 경로에 대해 폭넓은 논쟁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실제로 그 사회의 노동활동이 자연적 욕구와 정념에 따른 활동이 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던 푸리에의 사상은 이후 20세기 사회주의 이론이 보다 폭넓게 제기되는데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 특히 서구에서는 1968년 이후 ‘현실 사회주의’ 체제에 대한 회의와 비판 속

5) 콜(G. D. H Cole)의 『사회주의 사상사』나 린드만(A. S. Lindemann)의 『서양 사회주의의 역사』, 란다우어(C. Landauer)의 『유럽 사회주의』 등 1980-90년대에 한국에 번역되거나 소개된 푸리에 연구는 그의 사상에 대한 독자적인 논의가 아니라 대부분 마르크스 사상에 이르는 19세기 사회주의 사상의 흐름 속에서 소개된 것이었다. Cole, G. D. H., *Ibid.*, 1987; Lindemann, Albert. S., *History of European Socialism*, Yale Univ. Press(1983) 오주환, 진원숙 옮김, 『서양 사회주의의 역사』, 경북대출판부, 1993; Landauer, Carl, *European Socialism*, Univ. of California Press, 1959; Geoghegan, Vincent, *Utopianism and Marxism*, London: Methuen & Co, 1987; Hertzler, Joyce Oramel, *The History of Utopian Thought*, N.Y. Cooper Square Publishers, INC, 1965; Kovaly, Pavel, “Marxism and Utopia”, Peyton E. Richter (edt.), *Utopia/Distopia?*. Cambridge, MA: Schenkman Publishing Company, 1975. 필자의 글, “19세기 유토피아 사상의 정치철학적 토대 -푸리에(C. Fourier) 사상에서 열정, 열정의 계열, 열정인력법칙의 개념적 연구”, 『시민사회와 NGO』, 제11권 제2호. 2013, p.179 각주4) 재인용.

6) 『공산주의 선언』 이전에도 마르크스는 『철학의 빈곤』에서 이러한 견해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프롤레타리아트가 아직 자신을 계급으로 구성할 정도로 충분히 발전해있지 못하고 따라서 부르주아지에 대한 프롤레타리아트의 해방과 새로운 사회형성에 필요한 물질적 조건들을 예견할 정도로 부르주아지 자체의 태내에서 충분히 발전되어 있지 않은 조건에서 이 이론가들은 피억압 계급의 욕구에 대비하기 위해 각종 체계를 고안해내고 혁신을 추구하는 유토피아주의자들일 따름이다.” K. Marx, *Marx Engels Collected Works*, Moscow: Progress Publishers, 1975. Vo.4. p.246.

에서 사회주의적 ‘이상사회론’이 새롭게 조명되었다.⁷⁾ 매뉴엘(F. E. Manuel)과 마르쿠제(H. Marcuse), 브라운(Norman O. Brown)은 푸리에 사상에서 인간의 욕구와 감성의 해방이 가지는 의미를 강조하고 근대 문명이 가하는 인간 내면의 고통에 주목했다는 점에서 푸리에와 프로이트(S. Freud) 사상과의 관련을 주장하였다.⁸⁾ 한국의 경우 1990년대 이후에 와서 푸리에 사상이 가지는 독자적인 의미가 부각되며 좀 더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다. 한국 학계의 경우 그러한 변화는 1990년대 이후 나타났는데, 이 시기는 현실 사회주의 쇠퇴 이후 사회비판의 논의가 보다 다양하게 제기되었다는 점뿐 아니라 한국 사회 내부에서 시민사회 영역이 급속히 성장했던 점에도 깊이 연관되어 있다.⁹⁾

또한 필자는 앞선 연구의 후속 작업으로 푸리에가 제시했던 ‘열정/정념(passion)’ 개념이 근대 문명사회의 ‘욕구’와 어떻게 다른지, ‘열정/정념의 계열(serial passions)’들이 어떠한 기준으로 상호 구분되고 또 연결되는지, 그리고 ‘열정/정념인력의 법칙(Attraction passionelle)’이 어떻게 제시되는지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게 되었다. 어쩌면 근대 자본주의 사회가 많은 문제점과 비판에도 불구하고 몇 세기에 걸쳐 유지되고 있는 까닭은 그것이 인간 개개인의 욕구를 긍정하고 이를 소유권으로 보장하고 있는 데서 기인하는지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¹⁰⁾

그 연구에서 필자는 푸리에의 ‘욕구’와 ‘열정’의 개념이 개별적 인간의 효용으로 인간의 욕구를 해석하는 근대적 욕구 관념과는 근본적으로 다를 뿐 아니라 자유주의적 욕구와 소유권 개념에 대한 비판적 논거를 함축하고 있음을 주장하였다. 그에게 욕구의 충족이란 언제나 정념의 ‘계열’로 이루어지며 그 계열들 간의 대조, 변화, 결속에서 야기되는 경쟁과 협동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집합적이고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이다.

나아가 이 연구에서는 푸리에에게서 인간의 욕구/정념 충족이 그저 추상적으로 주어졌었거나 개인의 ‘행위 일반’을 통해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노동하고 일하는 집단과 군(serie)의 작업 활동’ 속에서 이루어지며, 따라서 그 사회의 분배 질서와 척도에 연

7) Geoghegan, Vincent. *op. cit.* (1987), p.21.

8) Manuel, Frank E. (ed.), *Utopias and Utopian Thought*, Boston: The Houghton Mifflin Company, 1965, pp.83-87; Brown, Norman, *Life against Death: The Psychological Meaning of History*, Connecticut: Wesleyan Univ. Press, 1959; Marcuse, Herbert, *Eros and Civilization*, Boston: Beacon Press, 1966; Marcuse, Herbert, “The End of Utopia”, *Five Lectures*, Boston: Beacon Press, 1970, 필자의 글, ‘앞의 논문(2013)’, p.184.

9) 1990년대 이후의 푸리에 연구경향에 대한 소개와 분석으로는 필자의 글, ‘앞의 논문(2013)’, pp.179-182와 pp.184-186을 참조할 것.

10) 그러한 맥락에서 필자는 새로운 사회의 가능성은 개인의 욕구를 억압하거나 배제하지 않고 이를 공동적으로 배치하는 데에서 찾아져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필자의 글, ‘앞의 논문(2003)’, p.167.

결되어 있다고 해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벤담(J. Bentham)의 논리적 전체에 대해, 다시 말해 ‘정치’의 의미가 개인의 욕구나 이익을 합산한데 기초하며 그것을 효율적으로 만족시키고 권리로 보장하는데 놓여 있다는 근대 자유방임적 욕구 개념, 정치 개념을 재고하는 일정한 시사점을 던질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본 논문에서는 푸리에에게서 나타나는 협동사회로의 경로와 꿈을 당대 푸리에주의자들에 의해 전개되었던 협동사회의 역사적 실험들과 20세기 후반부터 우리 사회에서 출현하고 전개되고 있는 새로운 협동체의 모색에 연결시켜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이 글에서는 먼저 푸리에가 제안했던 이상적 협동사회의 공동체인 ‘팔랑쥬’에서 노동과 생산 활동이 영위되는 사회적 관계와 분배의 원리는 무엇인지, 또한 그러한 사회적 배치가 어떻게 공동의 정치적 공간을 구성할 수 있으며 어떤 정치적 함축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를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푸리에가 제안했던 협동사회의 원리와 푸리에 이후 그 역사적 영향들 속에서 표현되었던 공동체 운동들, 그리고 20세기 중반 이후 제기된 새로운 노동의 개념과 분배와 정치의 원리를 연결시켜보려는 이 글의 작업은 새로운 정치체(new polity)에 대한 역사적 상상력을 확장하고 그것을 구성하는 정치원리에 대해 하나의 이론적 단초를 제공해줄 수 있을 것이다.

II. 푸리에의 협동사회¹¹⁾에서 나타나는 노동, 배분, 공동체 정치

푸리에에 정념들이 자유로이 표출되고 향유되기에 적당한 일정 규모의 연합을 구상하고 이를 ‘팔랑쥬(phalange)’¹²⁾라고 불렀다. 그는 협동사회의 본질이 단순히 노동의 대가에 대한 동등한 분배라는 외양이나 결과에서가 아니라 ‘마음에 끌리는 노동/매혹적인 노동(le travail attrayant)’이 가능하도록 협동체의 배치 원리가 전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오웬의 협동사회에 대해 다음과 같이 비판하고 있다.¹³⁾

11) 협동사회에 대한 용어와 관련하여 푸리에에 association이라는 용어가 오웬에 의해 남용되었으며 오웬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고 association보다 *sociétaire*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Fourier, C., *Le Nouveau Monde Industriel et Sociétaire*(1829), Paris, 이문창 옮김, 『산업적 협동사회적 새 세계』, 서울: 형설출판사, 1982, p.336. 예를 들어 『보편적 통일의 이론 Théorie de l'unité universelle』(1841~42)의 초판 1822년의 제목은 『가정적 농업적 협동사회 개론 Traité de l'association domestique-agricole』이었으나 이후 출간된 책의 제목은 *sociétaire*를 쓰고 있다. Fourier, C., *Ibid.*(1829), p.332.

12) ‘팔랑쥬(phalange)’란 용어는 고대 그리스에서 보병의 방진의 밀집방어를 뜻하는 ‘팔랑크스(phalanx)’에서 차용한 것으로, 그 진의 사람들이 밀접히 연결되어 있어 적이 쉽게 침투할 수 없도록 조직된 독립적이고도 완전한 전투단위를 뜻한다. Fourier, C., *Ibid.*(1829), p.339.

“오웬(R. Owen)과 그 추종자들은 협동사회의 본질을 고찰하지 못하고 외양만 이야기할 뿐이다... 더욱이 협동사회라고 하는 용어는 지나치게 남용되어 그 평판을 떨어뜨리고 있다....협동사회의 실제적인 시도가 미국 및 영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오웬이 이끄는 일과는 협동사회적 상태를 구축하고 있다고 자랑하고 있으나 그들은 전혀 반대로 행하고 있다. 그들은 방법상에 있어 자연이 이끄는 힘의 반대로 행하고 있기에 사람들의 마음을 이끌어 내지 못하고 있다....그들은 문제의 본질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데, 즉 재산이 불평등한 다수의 가족의 금전적 능력과 노동에서의 가능성을 결합시키거나 정념, 성격, 기호, 천성을 농업적 가정적 협동체 아래 협동시켜 대중의 이익을 손상시킴 없이 자신의 적성을 어렸을 때부터 개화시키고 그들의 노동을 변화시켜 그 협동체에 산업적 매력을 낳게 하는 데까지는 아직 착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¹⁴⁾

이는 그가 근대 문명사회 혹은 산업사회를 비판하는 데에서 잘 나타난다. 이미 앞선 연구에서 지적하였듯이, 푸리에에게 근대 문명사회에서 자본주의적 노동이 문제시되는 것은 노동의 결과인 분배나 소유가 불평등한 때문이라기보다 그 사회 노동의 관계가 인간의 정념을 왜곡하기 때문이다. 즉 그에게 문명 속의 노동이 처한 비참은 노동의 본질 자체에 있다기보다 가난의 공포 속에서 한 가지 일만 되풀이하게 만드는 당면 사회의 조건, 즉 근대 산업사회가 왜곡시킨 사회적 질서 때문인 것이다. 그러므로 각자의 정념에 따라 노동이 배치될 수 있는 사회적 원리, 사회적 관계의 재구성이 핵심적 문제가 된다.

공동체의 노동활동이 마음에 끌리는 노동이 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구성원들의 작업 활동이 스스로의 정념에 따라 자유롭고 다양하게 선택되어 배치되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노동의 배치가 각 개인의 자유로운 뜻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개별적으로 홀로 영위되는 활동이 아니라 반드시 자신의 선택에 의해 묶여진 소규모의 노동하고 일하는 ‘집단과 군(groupe et série)’의 작업활동으로 조직되고 영위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푸리에에 따르면, 인간의 정념이란 각각 충족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다른 정념 계열과의 ‘연관’과 ‘대조’를 통해, 그 과정에서 다른 정념과의 복합적인 ‘결합’을 통해서만 비로소 충족되는 것이기 때문이다.¹⁵⁾ 그러므로 그

13) “일정한 편견에 의해 협동사회에 관한 연구는 방해받고 있다....최근 사람들은 협동사회라는 말에 대해, 그 실질적인 것을 알지 못하고 협동사회적 관계의 목적, 그것이 채택할 형태와 방법, 그것이 채워 줄 조건 또는 그것이 가져올 바에 대해 분명히 알지 못하고 글을 쓰고 있다....나는 여기에서 정념인력의 과학이 협동사회를 성공시키는 유일한 길임을 제시하고자 한다.” Fourier, C., *Ibid.*(1829), pp.332-333.

14) Fourier, C., *Ibid.*(1829), pp.334-336. 1829년 저술 이외에도 푸리에에는 이후 1831년 생시몽과 오웬의 사회주의사상을 비판한 『생시몽과 오웬, 두 당파의 함정과 허풍 *Pieges et charlatanisme de deux sectes, St. Simon et Owen*』을 독립된 책으로 출간하여 이들의 이상사회론과 자신의 이론이 갖는 근본적 차이를 분명히 했다.

15) 필자의 글, ‘앞의 논문(2003)’, pp.160-161 참조.

에게서 정념의 문제는 자유로운 개인에서 출발하되 반드시 서로의 관련 속에서만 충족되는 ‘사회적’인 것이자 반드시 ‘노동’과 ‘분배’의 제 원리와 배치를 통해 충족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노동을 인간의 자연적 본성과 정념의 표현으로 보는 푸리에의 노동관은 원죄에서 비롯된 고통과 수고로운 의무로 파악되어왔던 중세적 노동 관념에서 벗어나 긍정적인 의미로 전환시켰다는 점에서는 근대적이지만, 홉스(T. Hobbes)나 스미스(A. Smith)가 제기했던 자유주의적 고전경제학에서의 노동 개념과도 근본적으로 구분된다.¹⁶⁾ 예컨대, 푸리에에는 그 당사자 개인의 욕구라고 흔히 해석되는 식욕이나 성욕조차도 욕구들의 결합에 의해서만 충족되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사람들에게 욕구가 충족되는 방식은 개별적인 것이 아니라 반드시 다른 이들과 함께 소규모의 그룹을 이루어 작업하는 속에서 다른 이들과의 경쟁, 협동, 신뢰, 변화를 통해 충족되고 영위되는 즐거움이며 욕구이기 때문이다.

또한 스스로의 정념에 따라 자율적으로 배치되는 노동의 체계는 생산성에 있어서도 근대 산업사회보다 더 커다란 성과를 올릴 수 있다고 예견된다.¹⁷⁾ 오히려 산업이 발달한 문명사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악순환 속에 놓여 있기에 ‘풍요 속의 빈곤’이 될 것이라고 비판된다. 사회 전체의 이해와 개인적 이해가 불일치하게 되며 그 목적과 실체가 ‘전도된 방식’으로 운용된다는 것이다. 가령, 인류의 건강을 위해 일한다는 소명을 지닌 의사는 시민들이 무거운 병에 걸리기를 바라게 되며, 건축가는 화재가 나길 바라게 되는 등 산업사회는 자신의 노동과 직업 속에서 허위의 삶을 살며 사회 전체는 전도된 사회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¹⁸⁾

팔랑쥬의 성원들¹⁹⁾은 그들이 원하는 바와 재능에 따라 하나의 집단과 군(groupe et

16) 푸리에에 따르면, 경제적 자유주의 이론은 문명을 불행으로 이끄는 허위과학이라고 비판된다. 그는 아담 스미스(A. Smith)에 대해 “책 가운데는 어찌 그리도 많은 부가 있는데 초가집 안에는 어찌 그리도 많은 가난이 있는가!”라고 조롱하며 이들의 이론은 사회 구성원들의 협동을 제거하고 구성원의 분산을 야기시키는 허위과학이라고 비판한다.

17) “협동사회적 산업이 갖는 밝은 측면의 하나는 상업제도에 진실성을 도입하는 것이다. 협동사회는 개인적이고 비연대적이고 허위적이고 복잡하고 번덕스러운 근대 산업사회의 경제제도를 동업조합적이고 연대적이고 성실하고 간단하고 보증할 수 있는 경제제도로 대체함으로써 상업상의 방종 다시 말해 협잡성을 띄게 마련인 경쟁을 산업에서 분리하여 기생적인 직업에 매달린 노동력과 자본을 20분의 1로 줄일 수 있다.” Fourier, C., *op. cit.*,(1829), p.354.

18) Fourier, C., *op. cit.*,(1829), pp.378-379

19) 푸리에에는 인간 열정의 체계를 12개로 파악하고 그 결합이 다양한 형태의 정념으로 조합되는 열정의 계열을 근거로 개개인의 성격유형을 810가지로 분류한다. 그리고 이에 바탕하여 공동체의 규모를 810명의 남녀균형인 1620명으로 제안하고 있다. Manuel, Frank E. & Manuel, Fritzie P.(eds.), *French Utopias: An Anthology of Ideal Societies*, New York, 1968. pp.301-314.

série)을 이루어 노동하는데, 하루에도 약 여덟 번 바뀌는 작업군에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배치가 조직되는 곳은 ‘정념 거래소(bourse)’²⁰로 제시된다. 이러한 노동의 배치는 사람들의 다양한 정념을 만족시켜주며 상이한 즐거움의 혼합을 가능하게 해준다는 것이다. 팔랑주에서 모든 사람들은 ‘정념거래소’를 통해 이루어지는 다양한 노동활동과 군 활동을 통해, ‘각자의 작업 군 내부의 활동에서는 ‘협동’의 관계를, 그리고 외부의 다른 유사 작업 군과의 관계에서는 ‘경쟁’의 관계를 익히게 된다. 사람들은 자신의 정념과 적성에 맞는 직업을 다양하게 전환하며 협동과 경쟁을 체험함으로써 즐겁고 행복할 뿐 아니라, 매번 바뀌는 작업계열로 인해 고정된 경쟁상대나 고정된 경쟁심이 생기지 않고 서로 협력하게 된다는 것이다.²¹

이러한 노동의 배치가 가지는 특징은 공동의 생활공간인 팔랑스테르(Phalanstère)²²의 구조에서도 잘 나타난다.²³ 일반적으로 건물의 구조와 형태는 이상 도시의 한 원형을 반영하는데, 아래의 그림에서와 같이 팔랑스테르의 전체적 형상은 새가 날개 짓 하듯이 좌우로 펼쳐진 모습이다. 특징적인 것은 그 건물의 형태가 많은 이상도시의 모델처럼 원형적이거나 방추형의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²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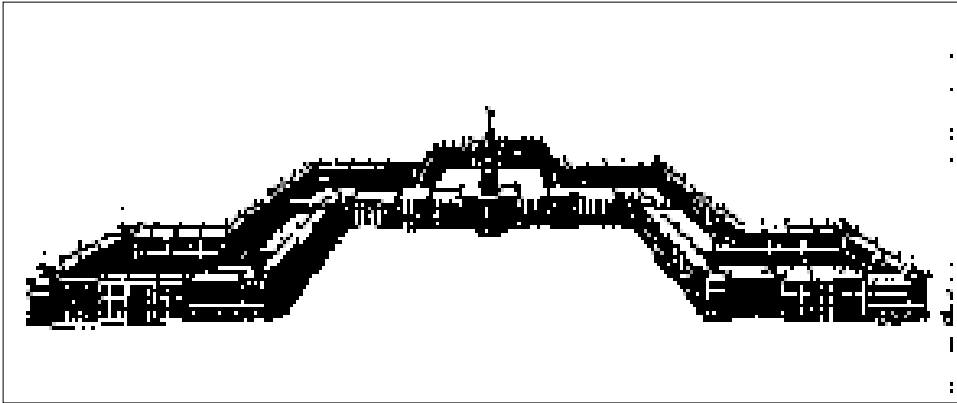
20) 푸리에에 이러한 ‘정념 거래소’에서 서로 간에 쉽게 의사를 교환하고 군을 형성할 수 있는 나름의 표시와 방식이 자리 잡을 것이며, 따라서 매번 새로운 군, 새로운 작업 활동으로 전환하는 데는 실제로 얼마의 시간이 걸리지 않으리라 예상하고 있다. 필자의 글, ‘앞의 논문(2003)’, 각주27) 참조.

21) Fourier, C., *The Utopian Vision of Charles Fourier: Selected Texts on Work, Love, and Passionate Attraction*, Columbia: University of Missouri Press, 1983. (이하 *Selected Texts*로 표기) pp.231-232.

22) 푸리에에 소규모 주택이 아니라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생활하는 ‘집합주택’으로 건설되어야 한다고 보았는데, 이렇게 함으로써만이 설비가 집중되고 주민들 간의 교류가 이루어진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한 집합주택은 그저 모여 있는 곳이 아니라 협동사회의 원리에 따라 구성된 팔랑크스(*phalanx*)와 경계가 정해져있지 않은 도시 형태를 대신하기 위한 단일한 복합건물인 팔랑스테르(Phalanstéry, Phalanstère)로 제안되었다. Benevolo, L., *The Origins of Modern Urban Planning*, Cambridge, Ma.: M.I.T. Press, 1967, p.99.

23) 이와 관련하여 프래거(F. A. Praeger)는 팔랑스테르의 설계가 도시건설의 한 축으로서 19세기 당시의 건물법규를 앞지른 것이었으며 이후의 도시계획에 크게 공헌한 것으로 평가한다. 팔랑스테르의 건물의 구조와 공간배치에 함축된 사회철학적 사상은 이후 미국에서 건설된 고댕(J. B. Godin)의 공동주택(Familistère)에 영향을 주었으며, 르 코르뷔지에(Le Corbusier)의 마르세유 집합주택(*Unite d’Habitation*)에도 그 영향을 엿볼 수 있다는 것이다. Praeger, Frederick A., *Matrix of Man -An illustrated History of Urban Environment*(1968) 『도시건축의 역사』, 최중현 외 옮김, 세진사, 1993. p.178.

24) 머포드(L. Mumford)는 토마스 모어나 캄파넬라를 비롯한 다른 많은 유토피아들이 대부분 그 공간적 배치에서 원형적인 고대 도시를 반영하거나 그 이념적인 잔영이 있다고 지적한다. Mumford, Lewis, “Utopia, The City and the Machine,” in Frank E. Manuel, ed., *Utopias and Utopians Thought*, Boston: Houghton Mifflin Company, 1965, pp.11-15.



〈그림 1〉 1,800명을 수용하는 공동거주지 팔랑스테르(Phalanstère;1829) (W. Curtis 1996, p.242)

팔랑스테르(phalanstère)의 구조는 4층 건물로 새가 날개를 펼친 것 같은 모습이며, 하나의 팔랑스테르에 기거하는 구성원은 1620명 내외나 대략 1800명 정도인데, 내부에는 냉난방이 완비된 쾌적한 거실, 침실, 공동식당, 오락실, 응접실, 집회실 등이 있으며, 안뜰에는 많은 수목과 분수, 연못, 화단 등이 마련되어 있다. 또한 팔랑스테르의 양측에는 지하도로 연결된 교회, 정념거래소, 극장, 우편국 등의 공공시설이 배치되고, 팔랑스테르의 앞에는 광장을 끼고 농업 경영상의 건물이 정연히 배치된다.²⁵⁾ 근대의 도시계획을 단순한 기술적인 측면에서가 아니라 당대의 정치가 지향하는 새로운 세계의 건설과 긴밀히 관련되어 있다고 보았던 베네볼로(L. Benevolo)는 팔랑스테르의 건축적 구도와 형상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²⁶⁾

“팔랑크스 부지의 중심에는 식당과 서무실, 도서관, 연구실 등 공공용도의 시설이 배치된다. 팔랑스테르의 중심위치에는 공공시설, 질서탑, 전신국, 우체국, 의식용 종탑, 실험실, 상록수로 우거진 정원이 자리잡고 있으며, 앞쪽에는 광장이 있다. 중심지구는 300프와즈이고 양쪽 건물은 150프와즈로 구성된다. 한쪽의 건물에는 시끄러운 소음이 있는 작업장인 목공소, 대장간 등의 일하는 곳이 함께 자리잡도록 배치한다. 또한 일반적으로 매우 소란스러운 어린이들이 모일 수 있는 여러 장소도 포함된다. 나머지 한쪽 건물에는 대연회실을

25) Fourier, C., *op. cit.*, (1829), p.328.

26) “그곳은 숲과 인접해있고 대도시로부터 멀리 떨어져있지 않아야 하지만 방해받지 않을 만큼은 떨어져 있어야 한다... 그곳의 면적은 1제곱리그(1리그=3마일(4.8279km), 6백만 제곱프와즈의 면적)의 토지에 1500~1600명이 모인 집단으로 거주하는데, 부지에는 하천이 있어야하고 구릉지가 가로놓여있고 여러 식물재배가 가능해야 한다.” Benevolo, L., *The Origins of Modern Urban Planning*, Cambridge, Ma.: M.I.T. Press, 1967, p.100.

갖춘 객실을 만들어 이곳의 방들은 건물 중심부에 방해를 주지 않고 내부관계에 혼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외부인 접견실로 배치된다. 주거용아파트들과는 떨어진 위치에, 열정적인 장안이 이루어지는 많은 대중집회소 또는 스리스테르(Seristeres)가 배치된다. 이 건물의 외관이 너무 옆으로 확장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중심건물과 양쪽 건물은 2층으로 배치된다. 평행으로 배치된 두 건물간의 거리는 15~20프와즈 정도의 여유가 있어야 하며 3개의 긴 앞마당은 50프와즈마다 1층 복도가 가로놓여 있다.”²⁷⁾

팔랑스테르의 구조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무엇보다 그것이 하나의 완결된 방어진을 뜻하는 ‘팔랑크스(*phalanx*)’라는 용어의 의미처럼, 하나의 독립되고 연결된 도시라는 데 있다. 이 건물의 각 부분은 어디든지 street-gallery를 통해 1층으로 접근할 수 있는 개방적인 열린 구조이다.²⁸⁾ 또한 중앙 공간에 공적이고 협동적인 공공시설이, 또 중앙의 양편 끝으로는 개별적이고 사적 공간²⁹⁾이 함께 공존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그러므로 팔랑스테르의 구조는 공공의 건물을 중앙으로 하고 좌우의 날개는 개인적인 주택이었다는 점에서 이러한 공간의 구도는 개별적인 자유와 협동적 공공이 공존하는 형태를 뜻한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이러한 노동과 삶의 새로운 배치는 팔랑주의 배분체계와 연결됨으로써 비로소 실제적인 것이 된다. 팔랑주의 배분체계를 살펴보면, 우선 공동체에서 생산된 이익금은 전체 성원을 위한 공공복지 비용에 할당되고 그 나머지 부분으로 자본, 재능, 노동에 따라 분배되는 것을 기본적인 원리로 삼고 있다. 산업사회의 임금제도는 폐지되고 공동체의 구성원은 배당금을 받는데, 남성, 여성, 어린이는 각자 자신의 자본, 노동, 재능의 공헌 정도에 따라 노동: 자본: 재능이 5 : 4 : 3의 비율로 그 몫이 할당되는 원칙이 제시되고 있다.³⁰⁾

그러므로 그가 제안하는 새로운 사회에서는 사실상 소득의 차이가 크게 의미를 갖지 않는다. 자본에 대한 몫보다 노동에 더 많은 분배가 할당되는 상황에서는 언제 누구라도 자본소유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팔랑주에서는 재산과 소득의 과도한 불평등을

27) Benevolo, L., *Ibid*, pp.101-102.

28) “벽체와 토지를 절약하기 위해서,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주민상호간의 교류를 증진하기 위해서, 이 건물은 지상층과 2층으로 건설된 2층을 제외하면 적어도 세계의 층과 다락방이 있을 수 있는 정도의 높이로 지어져야 한다. 지상층과 2층은 팔랑스테르에서 가장 중요한 street-gallery와는 분리되며, 어린이들과 노인들을 위한 숙소와 공공연회실로 구성된다. 다락방에는 숙박실 또는 방문자를 위한 객실과 소방용 저수조가 배치된다.” Benevolo, L., *Ibid*, p.102.

29) 공용실 양편 끝으로 나있는 개인주택들은 등급에 따라 배치되는데, 주택은 50프랑에서 1000프랑까지 20등급의 차별적 가격이 매겨진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

30) Fourier, C., *Selected Texts*, p.162. 팔랑주의 연간소득은 육체노동 5/12, 주식배당 4/12, 재능 3/12의 기준에 따라 배분되는데, 모든 사람은 이 세 종류의 소득을 합하여 받게 된다.

방지하기 위해 일정한 규제와 제한이 있었지만, 개인의 재산권 자체를 박탈하거나 소득 균등을 원리로 삼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³¹⁾ 그는 협동과 경쟁의 원리, 조화와 부조화의 원리 모두가 인간에게 없앨 수 없는 자연적인 욕구이자 실제로 협동사회를 결속시키는 충동의 원리가 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³²⁾

더욱이 팔랑주에서는 ‘최저 수입제(social minimum)’³³⁾를 통해 하루에 5번 식사를 할 수 있는 권리 등 기본적인 의식주가 배당됨으로써, 빈부의 차이는 의미가 없어지고 생계의 걱정에서 자유로워지도록 했다.³⁴⁾ 푸리에의 팔랑주의 생활에서 공동식사와 음악생활을 매우 중요시 했으며, 가난한 구성원들이라 해도 일 년 동안 지낼 수 있는 의식주를 보장받아야 한다고 생각했다.³⁵⁾ 구체적인 최저수입으로는 3급 식당에서 하루 5번의 식사를 할 수 있는 권리, 작업복과 파티복을 포함한 의류, 화장실이 있는 개인 방, 3급의 공공 홀과 축제에 참가할 수 있는 권리, 3급 극장의 좌석권이 제공되었다.³⁶⁾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본과 재능과 노동에 대한 분배의 기준과 평가가 공동체가 합의한 주요 기준과 구성원들의 투표에 의해 평가된다는 점이다. 푸리에에 따르면, 재능에 따른 분배는 구성원들의 투표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며, 자본의 할당은 개인의 자본을 나타내는 주식분에 비례해 이루어지며, 노동에 따른 분배는 생산성의 기준이 아니라 그 노동활동의 필요성, 유용성, 즐거움의 기준에 따라 평가되어야 한다고 제시된다.³⁷⁾ 그렇다면, ‘팔랑스테르(Phalanstère)’의 공간과 그곳에서의 공동체적 삶이란 단순히 지리적인 의미에서 주거를 함께 하는 공동주택의 의미를 넘어 구성원들이 생산과 배분을 비롯하여 공동체의 관계와 질서에 대한 원칙과 준거를 구성하고 공유하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정치적인’ 공간이라고 해석해 볼 수 있을 것이다.

31) 실제로 팔랑스테르에서 구성원이 기거하는 아파트는 각기 다른 규모로 묘사된다. 아파트의 크기와 규모는 각 개인들의 다양한 성향과 요구, 수입정도에 따라 달랐다.

32) 필자의 글, ‘앞의 논문(2003)’, pp.162-163 참조; 다만 그는 자본에서 오는 배당을 폐지하지는 않았지만, 자본에 의한 무제한적인 축적의 허용은 반대하였으며, 이를 제한하기 위해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자산의 총계에 따라 자본으로 투자되는 비율의 다양성을 통해 이를 제한할 것을 제외하고 있다.

33) “인간의 첫 번째 권리는 노동의 권리이며 최저수입에 대한 권리이다. 이것은 근대사회의 모든 법에서 인식된 적이 없었던 점이다.” C. Fourier, *Selected Texts*, pp.160-161.

34) Fourier, C., *Selected Texts*, pp.162-163.

35) Manuel, Frank E. & Manuel, Fritzie P.(eds.), *op. cit.*(1968), p.82.

36) Fourier, C., *Selected Texts*, pp.251-252.

37) Fourier, C., *Selected Texts*, pp.274-275.

Ⅲ. 푸리에의 영향, 역사적 실험에서 나타나는 노동, 배분, 정치

푸리에에 1832년 그의 생전에 프랑스 안에 팔랑스페르를 실현하고자 시도했다고 한다. 베네블로(L. Benevolo)에 따르면, 푸리에주의자였던 보테 뢰라리(M. Baudet Dulary)가 푸리에가 제안했던 공동체 설립을 위해 랑브이에 숲 근처 콩테-쉬르-베스그르(Conde-sur-Vesgre)지역에 부지를 구하고자 시도했지만, 자본부족으로 인해 공동체의 건설은 프랑스 안에서는 시도되지 못했다고 한다.³⁸⁾ 또 다른 시도가 알제리와 뉴 갈레도니아에서 전개되기도 하였다. 그것은 러시아의 박애주의자 부타세비치-빠뜨라세브스키(Petrascsevskij: 1821~1866)³⁹⁾에 의해 시도되었는데, 이러한 계획은 1848년 유럽 각지에서 일어난 혁명에 두려움을 느낀 니콜라이 1세가 1849년에 행한 강압정책인 자유사상금지령에 의해 중단되었다.⁴⁰⁾

푸리에의 영향은 그가 죽고 난 1840년대 이후 푸리에주의자들에 의해 널리 전파되고 전개되었다. 푸리에주의자들은 1832년 기관지 『르 팔랑스테르 *Le Phalanstère*』를 발간하였고, 1836년에는 『라 팔랑쥬 *La Phalange*』를 1843년에는 『평화적 민주주의』 잡지를 발간하여 푸리에사상을 선전하였으며 프랑스 각지에서 강연집회를 열어 더 많은 지지자를 모으고자 애썼다. 1848년에는 푸리에주의의 지지자가 3700명에 이르렀다. 이는 그 시기 생시몽 파의 쇠퇴와 대조되었다. 푸리에사상의 영향은 특히 1840년에 거의 모든 사회주의자에 미치고 있다.⁴¹⁾

실제로 푸리에의 새로운 협동사회에 대한 이상이 본격적으로 실천된 것은 미국에서였다. 1840년에서 1850년에 이르기까지 미국에서는 약 41개의 팔랑쥬 공동체가 건설되었는데, 1841년에서 47년까지 뉴잉글랜드를 중심으로 존재했던 Brook Farm이 조지 리플리(George Ripley)에 의해 건설되었으며, North American Phalanx는 1843년에서 1856년까지, Wisconsin Phalanx는 1844년에서 1850년까지 동안 호레이스 그릴리(Horace Greeley), 찰스 A. 다나(Charles A. Dana), 파크 고드윈(Parke Godwin) 등에 의해 실험되었다.⁴²⁾ 그 가운데 가장 오래 지속된 것은 고댕(Jean Baptiste Godin; 1817~1889)이

38) Benevolo, L., *op. cit.*, p.104.

39) 러시아의 사회주의청년그룹 <빠뜨라세브스키 모임>의 지도자였던 그는 푸리에 연구모임을 조직하였고 이 모임에는 도스토예프스키도 참가했다.

40) 프랑스 유토피아 사회주의와 러시아의 1840년대 지식인 운동과의 연관에 대한 설명으로는 Hillquit, M., *History of Socialism in the United States*, 1903; 이규환, “공상적 사회주의와 살뜨이꼬프-시체드린”, 『문예미학』, 제7호; 아나킨, A., 김익희 옮김, 『러시아 사상가들』, 나남출판, 1994. 참조.

41) Manuel, Frank E.(ed.), *Utopias and Utopians Thought*, Boston: Houghton Mifflin Company, 1965, pp.287-291; Cole, G. D. H., *op. cit.*, p.87. 필자의 글, ‘앞의 논문(2013)’, p.182 재인용.

건설한 파밀리스테르(*Familistère*)이며, 오늘날에도 1859년 북부 프랑스의 기스(*Guise*)지역에 건설되었던 ‘파밀리스테르(*Familistère*)’가 공동주택 또는 주택협동조합으로 존속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그 가운데 종교적 공동체나 공동주택의 성격을 넘어 공동체의 노동과 배분 시스템에 대한 원리를 가지고 있었고 공동체의 교육에 대한 독자적인 원리를 표방하고 전개되었던 브룩 농장(*Brook Farm*)을 중심으로 공동체의 노동과 배분의 원리 및 그 관련을 살펴보고자 한다.

브룩 농장(*Brook Farm*)은 리플리(*G. Ripley*; 1802~1880)의 주도하에 1841년 매사추세츠 주에 있는 웨스트 록스베리(*West Roxbury*)에 건설되었는데,⁴³⁾ 그 운영원리와 그 배분 체계를 보면, 농장에서 생산된 이익은 그 노동이 육체적인 것이든 정신적인 것이든 일한 날에 따라 비율을 정하고 배분되었다. 또한 공동체의 구성원은 자기 가족의 음식과 주거, 난방과 의복을 실비로 제공받았으며 누구나 하루 1달러씩 지급받았다. 공동체의 재정은 주식판매로 조달되었는데, 주식 1주를 사는 사람은 자동적으로 협회의 성원이 되고 협회는 이사진이 운영했다. 만일 이윤이 생기면 1명이 하루 일한 양의 합계에 해당하는 총주식수에 따라 분배했으며 모든 성원들은 하루 노동에 대해 한 주씩을 받았다.⁴⁴⁾

다시 말해 푸리에의 최저수입처럼 기본적 생계를 보장받고 누구나 1주씩을 동등하게 배분받았으며 각자 일한 양에 따라 주식수가 분배되었으므로 공동의 부분과 개별의 자유를 결합하고자 했다고 보여진다. 나아가 구성원들에게 주식의 배분은 단순히 경제적 의미를 넘어 공동체의 정치적 결정을 협의하는 협회의 활동으로 연결시켜 경제적 영역과 공동체의 정치적 판단의 활동을 연결하고자 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이 공동체의 실험은 농장 산하 학교의 교육적 특성으로 인해 유명했는데, 브룩 농장의 학교에서는 학생과 교육기구 사이에 완전히 자유로운 관계를 세우고자 목표했다. 학교 규율에서 징벌적인 성격을 완전히 없앴으며, 학생들에게 스스로의 책임감을 심어주고 지적 작업에 대한 열정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면밀한 노력이 기울여졌다. 학교는 유치원·초등학교, 그리고 6년 동안의 대학준비과정으로 운영되었는데, 특히 이곳의 교육과정에서는 규정된 학습시간이 없었으며 커리큘럼도 스스로 선택할 자유가 있었다. 다만 학생들은 하루 2~3 시간동안 밭에서나 혹은 부엌, 세탁실에서 일해야 하는 규정만이 의무

42) Benevolo, L., *op. cit.*, pp.60-61; Kanter, R. Moss, *Commitment and Community: Communes and Utopias in Sociological Perspective*, Cambridge MA: Harvard Univ. Press, 1972, pp.3-8.

43) Hillquit, M., *History of Socialism in the United States*, 1903. Chap.1-2. 농장을 조직하고 이끌었던 조지 리플리는 유니테리언파의 전직 목사였으며 월간 문예비평지 <다이얼 The Dial>의 편집자이자 보스턴 지역 지식인들의 비공식 모임인 '초월자 클럽'의 지도자였다.

44) Coldman, J T., *Brook Farm*, Boston: 1894; 브룩 팜의 운영에 대해서는 나다니엘 호손(N. Hawthorne)의 소설에서도 자세히 묘사되고 있다. Hawthorne, N., *The Blithedale Romance*, 1852.

적으로 부과되어 있었다.

이러한 철학은 근대 교육제도를 비판하고 스스로 공동체의 노동작업에 참여함으로써 육성되리라 전망했던 푸리에 사상의 연속선상에 있다. 푸리에에는 교육제도 자체를 부정하고 비판했으며, 교육기관이 아닌 공동체 내에서 아이들도 노동활동에 참여하고 예술적 작업에 참여함으로써 스스로의 욕구와 가치를 깨닫고 변화시키며,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사회적 물을 배우고 공동체의 가치와 자신의 가치를 성장시킬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브룩 농장의 실험은 초기 3년 동안은 번창하여 4개의 주 건물과 함께 작업장, 기숙사가 그 둘레에 건립되었다. 그곳에서 푸리에 이론의 영향이 커지면서 공동체를 ‘팔랑크스’라고 이름붙이고 팔랑스테르 건물을 건축하였으나 중심건물이 완성되자마자 1846년 3월2일 밤 화재로 완전히 불타버렸다. 브룩농장은 이 타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1849년에 해산되었다.⁴⁵⁾

브룩농장의 해산을 비롯하여 푸리에주의의 영향 하에 건설되었던 공동체 실험이 현실에서 부딪혔던 문제와 그 실패 원인에 대해서는 크게 다음의 세 방향에서 이야기된다. 그 하나는 공동체의 구성원 사이의 분파와 갈등으로 지적하는 해석이다. 위에서도 지적되었듯이, 브룩농장의 구성원은 단일한 계급구성이거나 균질된 구성으로 모였던 것은 아니었다. 이 협동체의 창립 주주들 중에는 찰스 A. 다나, 나다니엘 호손을 비롯하여 미국의 문학비평가, 지식인들이 많이 있었으며 또 한편으로는 기술공들과 노동자들이 있었다. 물론, 이러한 공동체들이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지속되었던 것은 그들을 묶어주는 공동의 목표와 생활이 있었음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일단의 지식인들과 노동자들 간의 결합과 결속은, 계급화해와 공존을 이야기했다는 점에서 푸리에의 사상의 유토피아적 한계를 지적했던 마르크스의 언급처럼, 공동의 토대와 이해를 갖지 못하는 불안한 결합이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는 다른 맥락에서 팔랑주의 역사적 실험들이 부딪혔던 한계나 문제점을 구성원들 간의 분파나 계급갈등으로 파악하지 않는 해석도 있다.⁴⁶⁾ 필자 또한 앞선 연구에서 오히려 이들의 실제적인 어려움은 상이한 주체간의 갈등이나 혹은 또 다른 권력의 발생이 아니라, 즐거운 노동에 대한 회의나 한계로 인한 스스로의 해산이나 의미축소에서

45) Benevolo, L., *op. cit.*, pp.106-107. 이후 비종교적 유토피아 실험의 열기는 미국에서 쇠퇴하였다. 로런스 그론런드의 <협동사회 The Cooperative Commonwealth>(1884)와 벨러미의 <회고 Looking Backward>와 같은 이상주의 책자가 발표된 뒤 1890년대에도 새로운 공동체가 몇 개 더 생겨났으나 지속되지 못한 채 곧 정치적 사회주의에 흡수되었다. Morton, A. L., *The English Utopia*, ed. Lawrence & Wishart, 1969. pp.162-165.

46) Landauer, Carl, *European Socialism*, Univ. of California Press, 1959, p.78.

비롯되었다고 파악하였다.⁴⁷⁾ 실제로 브룩 농장의 초기 참여자였던 찰스 A. 다나와 나다니엘 호손과 같은 지식인들은 이곳에서의 생활이 노동에 많은 시간을 할애함으로써 글을 쓰고 집필하는 활동에 한계를 느끼고 이곳을 떠났다고 회고하고 있다. 이들은 브룩농장을 떠나 이후 4년 동안 주간지 『선구자*The Harbinger*』를 발행하여 협동체의 원리와 사상을 전파하였다.⁴⁸⁾

또 한편, 미국에서의 팔랑스테르 공동체 실험들이 푸리에의 사상을 하나의 협동적 사회운동이념으로 전파하고 실험했던 그 방향성에 문제가 있다고 비판되기도 한다. 푸리에 주의자들이 푸리에의 사상의 급진성을 오히려 협동적, 급진 민주주의 계열로 희석시켰다는 것이다. 브룩 팜의 역사적 경험에 대한 위의 검토를 통해 보았을 때, 그 실험들은 그 분배체제와 교육과정에서는 어느 정도 푸리에의 연속선상에 있지만, 근대 산업사회에서 노동의 이념과 관계를 근본적으로 전환하지는 못했다고 판단된다. 또한 분배에 있어서도 브룩 농장은 그 날 노동하는 누구에게나 1달러가 지급되고 기본적인 생존에 필요한 것들이 제공되는 체제였지만, 그것은 소득이라는 결과의 측면에서 접근한 것일 수는 있지만 노동과 분배의 체제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전환이 되지는 못했던 것이다.

IV. 결론: 푸리에 사상의 정치적 함축, 대안적 노동이론과 정치이론의 연관을 위하여

이 글은 푸리에가 제안했던 새로운 사회에서 노동과 생산 활동이 영위되는 사회적 관계와 분배의 원리는 무엇인지, 그리고 그러한 사회적 배치가 어떻게 공동의 정치적 공간을 구성할 수 있을지 그 정치적 함축을 이끌어 내보고자 하였다. 또한 푸리에의 사상을 이후 푸리에주의자들에 의해 전개되었던 협동사회의 역사적 실험들과 이후 우리 사회에서 출현하고 있는 새로운 공동체 개념 혹은 새로운 노동과 분배의 개념에 연계시켜 봄으로써, 새로운 정치에 대한 역사적 철학적 상상력을 확장해보고자 하였다.

본론의 검토를 통해 보았을 때, 푸리에가 제안했던 협동사회 혹은 팔랑슈 공동체를 음

47) 필자의 글, ‘앞의 논문(2003)’, p.163. 및 ‘앞의 논문(2013)’, pp.183-184 참조.

48) Manuel, Frank E., *op. cit.*, pp.295-298; Benevolo, L., *op. cit.*, p.107; 실제로 이 공동체는 19세기 초기에서 중반기까지 미국에서 이루어진 많은 공동체 실험들 가운데 하나였지만, 이 실험이 미국 사회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갖게 된 것은 그곳의 운영원리가 가졌던 사회적 교육적 의미 뿐 아니라 농장에 참여했던 저명한 문필가와 지식인들이 브룩농장 생활의 새로움과 의미를 전파했던 데에서도 기인한다. 이에 대해서는 김영한, 『르네상스의 유토피아 사상』, 탐구당, 1983; 조은영, “낭만주의 시대의 유토피아관”, 『인문과학 문리논총1』, 전주대출판부, 1983. 참조.

직이는 원리는 **무엇보다 먼저, 생산 활동의 측면에서** 스스로의 정념에 따라 하루에도 몇 번씩 자유롭게 노동활동을 함께 하는 소규모의 집단을 구성하고 그 작업을 마치면 또 다른 노동활동 그룹으로 전환할 수 있는 원리로 영위되어야 한다는 점, **둘째로는 배분의 측면에서** 공동체의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최저 수입을 통해 기본적인 생존권이 보장되지만 개인의 활동이나 자본, 능력에 따라 저마다의 재산권을 가지며, 재능/자본/노동에 대한 분배가 3:4:5 비율로 이루어짐으로써 자본을 투여한 할당의 몫이 노동의 할당을 초과하지 못하게 하여 자본이나 재능을 통한 축적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라도 일에 참여하여 받게 되는- 노동의 몫을 초과하여 축적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분배의 원리가 제안되었다는 점, 그리고 셋째로는, 한편으로 구성원이 함께 참여하는 공동식사와 음악활동을 통해 공동체의 공동성과 일반성에 대한 감정과 원리를 공유하도록 진작하면서 또 한편으로 공동체의 분배 기준과 그 평가에 누구나 직접 참여하여 투표권을 통해 결정하게 함으로써 공동체 운영 원리에 대한 결정에 모두 직접 참여할 것을 **제안했다는 점에 그 핵심이 있었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 글은 푸리에의 ‘팔랑쥬(Phalange)’는 구성원들이 생산과 배분을 비롯하여 공동체의 관계와 질서에 대한 원칙과 준거를 함께 구성하고 공유하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정치적인’ 함축을 가진다고 해석하였다. 물론, 국가를 통한 문제의 해결에 근본적으로 반대하고 독자적이고 자율적인 1600여명 가량의 협동사회 혹은 공동체를 제안했던 푸리에의 사상에서 ‘정치’의 이념을 추론하는 것은 쉽게 이론화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이는 사회주의 사상을 하나의 정치이론 혹은 국가이론으로 볼 수 있는가라는 근본적인 문제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마르크스가 언급했던 국가의 소멸이나 정치의 종언이라는 언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의 해석은 아직도 논쟁 중이며, 같은 맥락에서 푸리에의 이론 또한 국가를 통한, 국가를 향한 경로가 아니었다는 점에서 오히려 아나키즘으로 평가되기도 한다. 그리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사회주의 혹은 꼬문주의 등이 근대적 정치와 근대적 국가 개념을 비판하고 있다할지라도 그것이 정치 자체의 부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푸리에의 협동사회론 혹은 공동체론이 하나의 정치이론으로 해석되기 위해서는 위의 논점에 대한 보다 면밀한 정치철학적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만, 이 글의 검토에서 본다면, 푸리에에게서 공동체의 ‘질서’ 혹은 ‘원리’가 생산활동과 분리된 공간에서 선출된 소수의 대표자에 의해 영위되는 것이 아니었음은 분명하다. 그에게서 ‘정치’란 자신의 일과 노동활동을 사회적인 관계로 스스로 구성하고 조직하는 활동이자 그 배분의 기준을 결정하는 활동 자체에 다름 아니었다. 푸리에에게서 ‘정치’는 노동과 배분의 형태와 방향을 조직하고 배치하는 스스로의 활동이라는 그러한 방식으로 연관되어 있

는 것이다. 그러므로 푸리에의 협동사회 혹은 공동체의 원리에서 ‘정치’의 이념이 있다고 할 수 있다면, 그것은 스스로 자유로운 노동활동의 배치에 참여하여 결정하고 그 활동에 대한 분배의 기준과 그 평가에 직접 참여하는 ‘생산자 스스로의 자치’로 조심스럽게 형상 화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푸리에가 제안했던 즐거운 노동사회와 협동사회의 이상은 오늘날 파레콘이나 몬드라곤 등의 협동조합운동이나 지주종업원제도 등으로 그렇게 시간을 가로지르며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최근에 와서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생산자 협동조합운동이나 화폐통합운동 혹은 레즈나 타임달러 등과 같이 새로운 가치관계를 창출하려는 여러 움직임들은 협동조합운동이나 생활협동조합운동이 단순한 소비나 유통의 합리화를 넘어서 새로운 공동체론과 연결될 수 있는 일정한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푸리에가 제기했던 욕구의 문제나 노동의 문제와 관련하여 새로운 도전들이 최근 여러 방면에서 제출되고 있다. 노동 개념에 대한 비판과 변화들은 네그리(Antonio Negri)와 하트(Michael Hardt)의 자율노동, 앙드레 고르(A. Gorz)의 노동 종말론, 노동거부론 등으로 전개되고 있다.⁴⁹⁾ 노동의 문제에 대한 새로운 시도들은 1. 노동시간 단축- 자율시간의 확대, 체계에 대한 생활세계의 확대, 2. 가치법칙의 거부- 자율노동, 자기가치화, 노동거부, 즐거운 노동, 자발적 가난 3. 생산자와 생산수단의 분리 거부- 노동자 자주관리, 지주종업원제, 4. 생산과 소유의 연대- 생산과 소유의 공적 통제 확대, 협동조합 등의 이론과 운동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 다른 한편, 소비와 향유의 측면에서도 새로운 논의와 운동이 실천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예컨대 타임 달러나 이타카 아워, 대전의 한발 레즈(LETS;지역통화) 운동과 같은 ‘지역화폐’운동이 그 한 방향이다.⁵⁰⁾ 이는 사용가치의 직접 교류를 중심으로 새로운 교류

49) Volf, Miroslav, 이정배 옮김, 『노동의 미래-미래의 노동』, 한국신학연구소, 1993; 마우리쥬오 랫짜라또, “비물질적 노동”, 이원영 옮김, 『이탈리아 자율주의 정치철학』, 갈무리, 1997; 질 들뢰즈 등 지음, 자율평론 옮김, 『비물질노동과 다중』, 갈무리, 2005; 안토니오 네그리 외 지음, 조정환 편역, 『자유의 새로운 공간』, 갈무리, 2007; 안토니오 네그리 & 마이클 하트 지음, 정남영, 윤영광 옮김, 『공동체Commonwealth-자본과 국가 너머의 세상』, 사월의 책, 2014; 김공회, “인지자본주의론의 가치이론 이해 비판: ‘비물질노동’의 개념화와 축적을 중심으로”, 『마르크스주의 연구』, 제9권 제1호, 2012.

50) Cahn, E. S. & Jonathan, R., *Time Dollars*, Emmaus: Rodale Press, 1992; Croall, Jonathan, *LETS Act Locally: The Growth of Local Exchange Trading System*, Calouste Gulbenkian Foundation, 1997; Lietaer, Bernard, *The Future of Money: Creating New Wealth, Work and a Wiser World*, 2001 ‘공동체 화폐’, 『녹색평론』, 제65호, 2002; Seyfang, G. & Williams, C., “레즈-상호부양의 교환체계”, 『녹색평론』, 제 40호, 1998; Thorne, L., “Local exchange trading systems in the United Kingdom: a case of re-embedding?”, *Environment and Planning*, Vol. 28, 1996; 마루야마 마코토, “경제순환과 지역화폐”, 『녹색평론』, 제 30호, 1996년 9-10월호, 1996; 강수돌, “이윤과 권력을 넘어서는 레즈 운동”, 『문화과학』, 제32호, 2002.

의 관계를 확장하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이와는 또 다른 맥락에서 기존의 소비와 향유를 넘어서려는 운동은 ‘공정거래무역’, ‘생활협동조합’ 등의 논의와 실천을 들 수 있다. 이들은 호혜적 시장의 창출을 통해 기존의 소비와 교류의 시장을 재구성하고자 하는 방향에서 있다고 할 수 있다.⁵¹⁾

그리고 소유와 재분배라는 측면에서도 기존의 노동 개념이나 패러다임을 넘어 노동의 사회적 가치를 재분배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논의들도 여러 방향에서 전개되고 있다. 예를 들어, 기본소득, 기본자산, 사회소득을 비롯하여 사회보험, 소득보장, 사회적권 등의 논의가 그것이다.⁵²⁾ 물론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해석은 이 논문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며 차후에 다른 지면을 통해 고찰되어야하겠지만, 분명한 것은 최근에 제기되는 논의들이 푸리에가 제안했던 노동, 배분, 정치의 관련에서 시사받을 수 있는 점이 많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기본소득 논의는 푸리에의 협동사회에서 보장되었던 최소수입과 비슷한 부분이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커다란 차이가 있다. 기본소득의 보장이 생존적인 삶의 보장 뿐 아니라 구성원의 사회적이고도 정치적인 삶의 보장으로 연결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일정한 소득으로 부여되는 결과물의 보장뿐만 아니라 노동과 일을 조직하는 원리와 질서를 만드는 그 과정에서, 그리고 나아가 삶의 성공과 행복이라는 사회의 가치에 대한 근본적인 전환이 요청되는 것이다.⁵³⁾

푸리에의 사상에 따르면, 협동사회와 공동체의 구성원은 다른 이들과의 관계에서 자유로운 노동을 영위하면서 동시에 그 공동체의 원리를 결정하고 실제적 운용을 판단하는 정치적 주체가 되어야 하는 것이었다. 바로 그것이 이 글이 푸리에를 경유하여 이끌어냈던 현재적 시사점이었다. 노동과 분배를 정치와 관련짓는 그 연결의 방향은 단순히 경제적인 고용과 소득의 보완책이나 복지정책의 차원에서 머물거나 조합원 몫의 배당과 노동 조건을 개선하는데 초점을 두는 조합주의적 차원에 한정된 것이 아니었다. 스스로가 속

51) 박임성아, “생활협동조합 활용법: 생산과 소비의 괴리없는 공동체로 오세요”, 『월간 말』, 190권, 2002; 박주원, “대안공동체론에 나타난 ‘대안’ 개념과 ‘공동체’ 개념의 정치사상적 성찰”, 『역사비평』, 통권 82호, 2008; 이가옥, 고철기, 『공동체경제를 위하여』, 대구: 녹색평론사, 2001; 최병두, “도시공동체운동”, 『환경과 생명』, 제24호, 2000.

52) 강남훈, “불안정 노동자와 기본소득”, 『마르크스주의 연구』, 제10권 제2호, 2013; 광노완, “노동의 재구성과 기본소득”, 『마르크스주의 연구』, 제10권 제3호, 2013; 박주원, “프롤레타리아트에서 프레카리아트로?: 우리 시대 프롤레타리아트에 대한 정치철학적 고찰”, 『현상과인식』, 제45권 1호, 2021.

53) 더글러스 러미스 지음, 김중철, 이반 옮김, 『경제성장이 안되면 우리는 풍요롭지 못할 것인가』, 녹색평론사, 2002; 슈마허, E. F. 지음, 이승무 옮김, 『내가 믿는 세상』, 문예출판사, 2003; 스캇 니어링 지음, 류시화 옮김, 『조화로운 삶』, 보리출판사, 2000; 프란스 판 데어호프 지음, 김영중 옮김, 『희망을 거래한다』, 서해문집, 2004; 강수돌, 『작은 풍요』, 이후, 1999; 조경만, “대안적 문화와 삶의 양식의 전환”, 『환경과 생명』, 통권 16호, 1998.

한 경제적 사회적 삶의 원리와 시스템을 구성하고 배치할 수 있는 활동, 바로 그러한 행위가 푸리에가 제안했던 공동체의 활동이며 정치적 행위이다. 어떤 삶이 가치있고 즐거우며 정당한지에 대한 새로운 생각으로의 전환, 그리고 노동, 고용, 계약, 임금, 성공, 행복, 삶, 가치, 정치에 대해 다른 모양의 의미와 관계를 창출하는 것. 이를 통해 한 시대와 한 사회의 이념과 패러다임은 새로운 것으로 변화해 나아간다.

참고문헌

- 강남훈, “불안정 노동자와 기본소득”, 『마르크스주의 연구』, 제10권 제2호, 2013.
- 강수돌, “이윤과 권력을 넘어서는 레즈 운동”, 『문화과학』, 제32호, 2002.
- _____, 『작은 풍요』, 이후, 1999.
- 곽노완, “노동의 재구성 과 기본소득”, 『마르크스주의 연구』, 제10권 제3호, 2013.
- _____, “기본소득과 사회연대소득의 경제철학”, 『시대와 철학』, 제18권 2호, 2007.
- 김공희, “인지자본주의론의 가치이론 이해 비판: ‘비물질노동’의 개념화와 측정을 중심으로”, 『마르크스주의 연구』, 제9권 제1호, 2012.
- 김영환, “유토피아주의”, 『서양의 지적운동 I』, 서울: 지식산업사, 1994.
- _____, 『르네상스의 유토피아 사상』, 탐구당, 1983.
- 김재기, “푸리에의 사회철학의 기본원리”, 『사회철학 대계 2』, 서울: 민음사, 1993.
- 김진, “블로흐의 희망철학과 유토피아론”, 『사회철학대계 2』, 서울: 민음사, 1993.
- 김현, 『문학과 유토피아』, 문학과 지성사, 1980.
- 더글러스 러미스 지음, 김종철, 이반 옮김, 『경제성장이 안되면 우리는 풍요롭지 못할 것인가』, 녹색평론사, 2002.
- 마루야마 마코토, “경제순환과 지역화폐”, 『녹색평론』, 제 30호, 1996년 9-10월호, 1996.
- 마우리쨌오 랫짜라또, “비물질적 노동”, 이원영 옮김, 『이탈리아 자율주의 정치철학』, 갈무리, 1997.
- 박임성아, “생활협동조합 활용법: 생산과 소비의 괴리없는 공동체로 오세요”, 『월간 말』, 190권, 2002.
- 박주원, “프롤레타리아트에서 프레카리아트로?: 우리 시대 프롤레타리아트에 대한 정치철학적 고찰”, 『현상과인식』, 제45권 1호, 2021.
- _____, “‘뉴 라나크’와 ‘뉴 하모니’ 사이에서: 오웬의 유토피아 실험에서 정치 이념의 전환”, 『현상과인식』, 40권 제4호, 2016.
- _____, “19세기 유토피아 사상의 정치철학적 토대 - 푸리에(C. Fourier) 사상에서 열정, 열정의 계열, 열정인력법칙의 개념적 연구”, 『시민사회와 NGO』, 제11권 제2호, 2013.
- _____, “마르크스 사상에서 감성의 정치 혹은 문화정치의 가능성”, 『한국정치학회』, 제45집 제5호, 2011.
- _____, “대안공동체론에 나타난 ‘대안’ 개념과 ‘공동체’ 개념의 정치사상적 성찰”, 『역사비평』, 통권 82호, 2008.
- _____, “푸리에에서 맑스로? 맑스에서 푸리에로 - 팔랑쥬(phalange), 즐거운 노동공동체의 가능성과 한계”, 『한국정치학회』, 제37집 제3호, 2003.

- 슈마허, E. F. 지음, 이승무 옮김, 『내가 믿는 세상』, 문예출판사, 2003.
- 스캇 니어링 지음, 류시화 옮김, 『조화로운 삶』, 보리출판사, 2000.
- 아나킨, A., 김익희 옮김, 『러시아 사상가들』, 나남출판, 1994.
- 아베 요시히로, 이즈미 루이 지음, 전정근 옮김, 『지역통화입문』, 서울: 아르케, 1999.
- 안토니오 네그리 & 마이클 하트 지음, 정남영, 윤영광 옮김, 『공동체Commonwealth-자본과 국가 너머의 세상』, 사월의 책, 2014.
- 안토니오 네그리 외 지음, 조정환 편역, 『자유로운 새로운 공간』, 갈무리, 2007.
- 오광호, “프랑스 제3공화정 전기 사회주의 연구”. 서울대 서양사학과 박사학위논문, 1992.
- 육영수, “유토피아 사회주의.” 김영한 엮음, 『서양의 지적운동 II』, 서울: 지식산업사, 1998.
- 이가옥, 고철기, 『공동체경제를 위하여』, 대구: 녹색평론사, 2001.
- 이규환, “공상적 사회주의와 살뜨이꼬프-시체드린”, 『문예미학』, 제7호; 참조.
- 이문창, “샤를 푸리에의 생애와 사상”, 『사회에 관한 새 견해 外』, 서울: 형설출판사, 1982.
- 자크 비테, 제라르 뒤메닐 지음, 김덕민 옮김, 『대안마르크스주의- 새로운 세계를 위한 마르크스주의적 대안』, 그린비, 2014.
- 제라르 뒤메닐, 도미니크 레비 지음, 『현대 마르크스주의 경제학』, 그린비, 2009.
- 조은영, “낭만주의 시대의 유토피아관”, 『인문과학 문리논총1』, 전주대출판부, 1983.
- 질 들뢰즈 등 지음, 자율평론 옮김, 『비물질노동과 다중』, 갈무리, 2005.
- 최갑수, 『프랑스노동운동과 사회주의』, 서울: 느티나무, 1989.
- 최병두, “도시공동체운동”, 『환경과 생명』, 제24호, 2000.
- 프랑스 관 테어호프 지음, 김영중 옮김, 『희망을 거래한다』, 서해문집, 2004.
- Arendt, Hannah, *Human Condition*, New York: Doubleday Anchor Books, 1959.
- Bauman, Zygmunt, *Socialism: the active utopia*, London: Allen and Unwin, 1976.
- Beecher, Jonathan, *Charles Fourier: The Visionary and His Work*, Berkeley, 1986.
- Benevolo, L., *The Origins of Modern Urban Planning*, Cambridge, Ma.: M.I.T. Press, 1967.
- Brown, Norman, *Life against Death: The Psychological Meaning of History*, Connecticut: Wesleyan Univ. Press, 1959.
- Cahn, E. S. & Jonathan, R., *Time Dollars*, Emmaus: Rodale Press, 1992.
- Coldman, J T., *Brook Farm*, Boston: 1894.
- Cole, G. D. H., *A Century of Co-operation*, Manchester, 1944.
- _____, *Socialist Thought: The Forerunners 1789~1850*, London: 1962, 이방석 옮김, 『사회주의 사상사1』, 서울: 신서원, 1987.
- Croall, Jonathan, *LETS Act Locally: The Growth of Local Exchange Trading System*, Calouste Gulbenkian Foundation, 1997.
- Fourier, Charles, *Le Nouveau Monde Industriel et Societaire*(1829), Paris, 이문창 옮김, 『산업적 협동사회적 새 세계』, 서울: 형설출판사, 1982.
- _____, *Design For Utopia: Selected Writings of Charles Fourier*, trns by Julia Franklin & Frank Manuel, New York, 1971.
- _____, *The Utopian Vision of Charles Fourier: Selected Texts on Work, Love, and*

새로운 정치공간을 찾아서: 샤를 푸리에(C. Fourier)의 협동사회를 통한 역사적 상상력 (박주원)

Passionate Attraction, Columbia: University of Missouri Press, 1983. (Selected Texts로 축약하여 표기)

- Geoghegan, Vincent, *Utopianism and Marxism*, London: Methuen & Co, 1987.
- Harvey, David, 최병두 옮김, 『자본의 한계: 공간의 정치경제학』, 한울, 1995.
- Hawthorne, N. *The Blithedale Romance*, 1852
- Hertzler, Joyce Oramel, *The History of Utopian Thought*. N.Y. Cooper Square Publishers, INC, 1965.
- Hillquit, M., *History of Socialism in the United States*, 1903.
- Hobsbawm, Eric J., “Marx, Engels and Pre-Marxism Socialism”, Eric Hobsbawm (ed.) *The History of Marxism, vol. 1, Marxism in Marx's Day*. The Harvester Press. 1982. “맑스, 엥겔스와 맑스 이전의 사회주의”, 서관모 옮김, 『역사적 맑스주의』, 서울: 새길, 1993.
- Holyoake, G. J., *The History of Co-operation in English: its Literature and its Advocates*, London, Vol.1. 1875.
- Kanter, Rosabeth Moss, *Committment and Community: Communes and Utopias in Sociological Perspective*. Cambridge MA: Harvard Univ. Press, 1972.
- Kovaly, Pavel., “Marxism and Utopia”, Peyton E. Richter (edt.), *Utopia/Distopia?*. Cambridge, MA: Schenkman Publishing Company, 1975.
- Landauer, Carl, *European Socialism*, Univ. of California Press, 1959.
- Lietaer, Bernard, *The Future of Money: Creating New Wealth, Work and a Wiser World*, 2001
‘공동체 화폐’, 『녹색평론』, 제65호, 2002.
- Lindemann, Albert. S., *History of European Socialism*, Yale Univ. Press, 1983. 오주환, 진원숙 옮김, 『서양 사회주의의 역사』, 경북대출판부, 1993.
- Mailer, R., *Fourier et Marx*, 1978.
- Manuel, Frank E. & Manuel, Fritzie P., *Utopian Thought in the Western World*, Cambridge Mass.: The Belknap Press of Harvard Univ. Press, 1979.
- Manuel, Frank E. & Manuel, Fritzie P.(eds.), *French Utopias: An Anthology of Ideal Societies*, New York, 1968.
- Manuel, Frank E.(eds.), *Utopias and Utopian Thought*, Boston: The Houghton Mifflin Company, 1965.
- Marcuse, Herbert, *Eros and Civilization*, Boston: Beacon Press, 1966.
- _____, “The End of Utopia”, *Five Lectures*, Boston: Beacon Press, 1970. 홍윤기 옮김, 『혁명이나 개혁이나: 마르쿠제, 포퍼논쟁』, 서울: 사계절, 1982.
- Marx, Karl, *Marx Engels Werke*, (MEW로 축약), Bd. 1-42, Berlin: Dietz Verlag, 1958.
- _____, *Marx Engels Collected Works*, Moscow: Progress Publishers, 1975.
- _____, *Grundrisse*, (이하 GR로 축약) trans. M. Nicolaus, Penguin Books, 1973.
- Morton, A. L., *The English Utopia*, ed. Lawrence & Wishart, 1969.
- Mumford, Lewis, *The Story of Utopias*, Viking Press, 1962.
- _____, “Utopia, The City and the Machine,” in Frank E. Manuel, ed. *Utopias and Utopians Thought*, Boston: Houghton Mifflin Company, 1965.

- Nolte, E., *Sozialismus vor Marx*. Frankfurt Am mein, 1984.
- Noyes, John H., *The History of American Socialism*, New York, 1961.
- Praeger, Frederick, *Matrix of Man -An illustrated History of Urban Environment*, 1968, 최중현 외 옮김, 『도시건축의 역사』, 세진사, 1993.
- Riasanovsky, Nicholas V.. *The Teaching of Charles Fourier*, Berkeley, 1969.
- Robinson, Paul A., *The Freudian Left*, Harper & Row Publishers, 1969.
- Seyfang, G. & Williams, C., “레즈-상호부양의 교환체계”, 『녹색평론』, 제 40호, 1998.
- Taylor, Keith, *The Political Ideas of the Utopian Socialism*, London, 1982.
- Thorne, L., “Local exchange trading systems in the United Kingdom: a case of re-embedding?”, *Environment and Planning*, Vol. 28, 1996.
- Ulam, Adam, “Socialism and Utopia”, F. E. Manuel (edt.) *Utopias and Utipians Thought*, Boston: Houghton Mifflin Company, 1965.
- Volf, Miroslav, 이정배 옮김, 『노동의 미래-미래의 노동』, 한국신학연구소, 1993.
- Yassour, A., “Communism and Utopia: Marx, Engels and Fourier”, *Studies in Soviet Thought*. No. 26, 1983.

【 Abstract 】

**Imagine the New Polity
: A Historical Imagination of the Utopian Communities in Fourier**

Joo-Won Park

This essay offers a current opinion to substantiate ‘new polity,’ connecting the path and imagination of a cooperative society illustrated by Charles Fourier, an early 19th-century socialist, with the historical experiments of cooperative societies developed by his colleagues and the emerging models of associations in our society since the late 20th century.

To this end, this paper seeks to explore the social relationships and distribution principles in the Fourier’s society where labour and production activities are practiced, and derive implications for how such social arrangement constructs a common political environment. Further, this essay aims to expand the historical and philosophical speculation on a ‘new polity’ by linking Fourier’s ideas with the historical experiments of cooperative societies developed by Fourierists and with the nascent concept of new communities or alternative labour and distribution approaches in our society.

While a detailed theoretical review is called for to answer whether Fourier's thought truly involves a political ideology, this essay suggests it is evident to him that the ‘order’ or ‘principle’ of the community is not determined by a few representatives who were chosen by the people. In Fourier’s conceptualization, ‘politics’ is rather an activity of constructing one’s own work and labour activities as social relations and determining the criteria for their distribution.

If it exists in Fourier’s cooperative society or community principles, the idea of ‘politics’ would be carefully interpreted as ‘self-management of producers,’ where individuals actively engage in the arrangement of free labour and determine their own principles of distribution for appropriate evaluation. In this regard, Fourier’s ideology can provide a

philosophical and historical framework to connect the political space to the realms of labour and social relations.

Key Words : C. Fourier, labour, need, serial passions, bourse, social minimum, association, societaire, Phalange, Phalanstère, Brook Farm, the utopian community movement, historical Imagination, new polity